

## 2017학년도 한국사/동양사 출제 경향 윤상환 선생님의 강의 및 문제풀이 일치도

### 1. 한국사

문항	배점	출제영역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A형	1번	2 고대: 고구려 왕위 계승, 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2》 p.63, p.76</li> <li>• 3-4월 1주차 3강 : 고구려의 수도 변경 표시(과제)</li> <li>• 3-4월 2주차 8강 : 고구려 왕위의 부차상속이 이루어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li> <li>• 3/21 형성평가 2번</li> </ul>
	3번	2 중세: 고려 성종, 건원중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2》 p.416~417</li> <li>• 3-4월 7주차 29강 : 필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li> <li>• 《한국사통론》 중세 괄호 넣기 5번</li> </ul>
	4번	2 근·현대: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중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2》 p.834~835</li> <li>• 5-6월 8주차 42강: 《한통》 p.407~409</li> </ul>
	12번	4 근·현대: 귀속재산, 부정축재처리법, 원조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2》 p.1036</li> <li>• 1-2월 8주차 144강: 한국현대사 자료</li> <li>• 2016단원별 문제 제7강 한국 근현대사2 17번</li> </ul>
B형	2번	4 근세: 역사서(동사강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2》 p.733</li> <li>• 5-6월 5주차 27강: 《한통》 p.346</li> <li>• 7-8월 9주차 47강: 《한특(구)》 p.499</li> <li>• 2016단원별 문제 제1강 한국 고대사 5번</li> </ul>
	6번	5 근세: 유향소, 경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2》 p.516~517</li> <li>• 5-6월 2주차 9강: 《한통》 p.273</li> <li>• 7-8월 2주차 10강 : 《미래엔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 참고자료 Ⅲ-1-② p.4 유향소</li> <li>• 9-11월 4주차 39강 : 조선시대 지방제도 필기</li> <li>• 조선 전·후기 괄호 넣기 15번</li> <li>• 2016단원별 문제 제4강 한국사 조선시대 전기 9번</li> </ul>
	7번	5 근·현대: 임시정부, 3부통합, 신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2》 p.918, p.921, p.936~939, p.961</li> <li>• 1-2월 8주차 144강: 한국 근대사 자료 p.16</li> <li>• 7-8월 8주차 40강 :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p.263, p.272, p.288</li> <li>• 2016단원별 문제 제7강 한국 근현대사2 10번</li> </ul>

(1) A형 2번

2. 밑줄 친 ㉠이 가리키는 곳을 쓰고, 밑줄 친 ㉡ 이후에 이 나라에서 확립된 왕위 계승 방식을 쓰시오. [2점]

백고(伯固)가 죽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다. 장자가 발기(拔奇)이고 차자가 이이모(伊夷模)였다. 발기가 불초하여 국인(國人)이 이이모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 (중략) ... 발기가 형으로서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소노부 세력과 더불어 하호 3만여 인을 거느리고 요동의 공손강에게 가서 항복하고 돌아와 비류수가에 거주하였다. ... (중략) ... 이이모가 ㉠ 지금 소재지에 ㉡ 국(國)을 새롭게 만들었다.

- 「삼국지」 동이전 -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① 《윤·김 임용역사2》 p.63, p.76

② 3-4월 1주차(3강)

p. 68-69

• 고구려: <삼국지 위지 동이전> 참조, **고구려의 수도 변경 표시하기(지도에 표시)**,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신화 확인, 연나부=절노부(왕비 배출), '고구려에서는 5부의 대가도 각기 사자 조인·선인 등의 분족적 군장국가의 유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 <한길>, <고통> 部체제 관련 글 참조.

③ 3-4월 2주차(8강)

한국사 2주차 강의 정리

1. 고구려의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진 시기?

: 고국천왕 사후(고국천왕이 아들 없이 죽음), 고국천왕의 동생이 왕위를 이어(산상왕) 형제상속이 되긴 하였으나, 고국천왕은 아버지 신대왕의 뒤를 이어(부자상속)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고국천왕 때부터 왕위의 부자상속이 확립되었다고 본다.(산상왕 이후 동천왕은 산상왕의 아들, 동천왕 이후 중천왕은 동천왕의 아들..)

④ 한국고대사 형성평가(2) 2번

2. 다음 사료의 인물 때에 이룩한 국가체제의 정비 내용을 3가지 서술하시오.

…… 諱男武[或云伊夷模]新大王伯固之第二子 伯固薨國人以長子拔奇不肖 共立伊夷謨爲王 漢獻帝建安初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 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遷住沸流水上 王身長九尺 姿表雄偉 力能扛鼎 蒞事聽斷 寬猛得中 <三國史記>

<번역> 고국천왕(故國川王)[혹은 국양(國襄)이라고도 한다.]의 이름은 남무(男武)[혹은 이이모(伊夷模)]라고도 한다.]이며, 신대왕(新大王) 백고(伯固)의 둘째 아들이다. 백고가 돌아가셨을 때 나라 사람들이 맏아들 발기(拔奇)가 어질지 못하다 하여 이이모를 옹립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한나라 헌제(獻帝)建安 초기에 발기가 형인데도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연노가(涓奴加)와 함께 각각 下戶 3만여 명을 거느리고 공손강(公孫康)에게 가서 항복하였다가, 돌아와 비류수 가에서 살았다.

임금은 키가 9척이고 모습과 자태가 훌륭하며, 힘은 솔을 들어 올릴 만큼 세었다. 일에 임해서는 경청하여 결단하고 관대함과 예리함을 적당히 지켰다.

(2) A형 3번

3.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왕을 쓰고, 밑줄 친 ㉡에 따라 사용된 화폐의 이름을 쓰시오. [2점]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 (전략) ... 근래에 시중 한언공의 상소를 살펴보니 말하기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일에 유리하게 하려면 모름지기 옛 법에 따라 항상 일관성이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 ㉠전왕(前王)이 ㉡돈을 처음으로 사용케 하던 일을 계승하시고 추포(纒布)의 사용을 금지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시니, 국가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부질없이 백성들의 원망만을 일으킵니다.'라고 했다. 내가 이제 바야흐로 나에게 충고해 주는 구체적인 제의를 듣고 보니 어찌 이것을 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곧 근본에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돈 통용의 길을 막으려 한다. 차(茶)나 술, 그리고 음식 등을 파는 각종 점포들이 교역을 하는 때에는 이전과 같이 돈을 쓰게 하고, 그 외에 백성들이 사사로이 서로 교역하는 것은 토산물을 마음대로 쓰도록 하라."고 했다.

- 「고려사」 「식화지」 -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① 《윤·김 임용역사2》 p.416~417

② 3-4월 7주차(29강): 필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

Q. 국가에서 조세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현물, 현물화폐(布, 米)

↳ 돈: 금/ 은/ 동전

**고려 성종: 건원중보**

속종: 삼한통보 중보/ 동국통보 중보/ 해동통보/ 활구, 은병  
cf) 조선: 지폐/ 세조: 유업전/ 인조 이후→상평통보(업전)

③ 《한국사통론》 중세 괄호 넣기

5. 금속화폐는 996년(성종 15)에 처음으로 鐵錢인 ( )을 주조하여 사용케 하였으나 활발하게 유통되지 못하였으며, 1102년(숙종7) ( )를 주조하고 또 고액화폐로 은으로 만든 ( )을 만들어 사용케 하였으나, 고려 경제적 미숙은 유통경제활성화를 이룩하지 못하게 하였다. - 193쪽

(3) A형 4번

4. 다음 내용을 결의한 집회의 명칭을 쓰고, (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제1조 외국인에게 의부(依附)하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케 할 것.  
 제2조 광산·철도·탄광·삼림의 개발 및 차관·차병(借兵)과 외국과의 조약은 각부 대신과 (가)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하지 못하게 할 것.  
 제3조 전국의 재정은 어떠한 세를 물론하고 모두 탁지부에서 관할하여 다른 기관이나 사회사(私會社)가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표할 것.  
 제4조 죄인을 재판에 회부하되 피고가 자복(自服)한 후에야 시행할 것.  
 ... (하략) ...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① 《윤·김 임용역사2》 p.834~835

② 5-6월 8주차 42강: 《한통》 p.407~409

-p. 407~409 ★독립협회의 활동: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계몽운동

• p. 407(3번째 문단)

• p. 408(2번째 문단) ★독립협회의 3가지 주장, 중추원(시기별 역할변화 check)

• p. 408~409 ★만민공동회, 현의6조



(4) A형 12번

12. ㉠에 들어갈 말을 쓰고, 밑줄 친 ㉡ 법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을 통해 성장한 산업 업종 2가지를 포함하여 1950년대 한국 경제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4점]

(가) 8·15 해방 후 10여 년을 경과하고 ㉠의 처분도 종결 단계에 가까운 차제에 ... (중략) ... 정부가 불하 대상인 대규모의 기간 산업체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정실에 호르는 관료의 독선 독단으로써 일부 소수 특권층에게 위법으로 현 시가와 유리되는 가격으로 우선적 매각을 감행함으로써 인하여 ... (중략) ... 국가 세입에 다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일보, 1956년 1월 21일 -

(나) ㉡ 본 법에서 부정 이득자라 함은 1953년 7월 1일 이후 1961년 5월 15일까지에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공유 재산이나 ㉠의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한 취득 점유에 의하여 총액 1억 환 상당 이상의 부정 이득을 취득한 자
- 금융 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고 총액 5천만 환 이상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자
- 외국 물자 구매 외환 또는 ㉢ 외국 물자의 구매 배정을 독점함으로써 총액 2억 환 상당 이상의 부정 이득을 취득한 자 ... (하략) ...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① 《윤·김 임용역사2》 p.1036

② 1-2월 8주차 144강

한국현대사 자료: 1940년대(후반)~2000년대 경제 발전 모습

③ 2016단원별 문제 제7강 한국 근현대사2 17번

•(p.6)★문17: 1950년대 미국의 대외전략? 동아시아/동북아(남한, 북한, 대만, 일본, 中共)

↓  
독재↑: 민주세력+민족세력⇒사회주의 변질 확률↑  
농산물, 소비재 산업↑: 진미정권 유지+防共網 확충.

(5) B형 2번

2. 다음은 어느 책의 서문이다. (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에 따른 역사 서술 체제를 쓰고, 밑줄 친 ㉢에 따라 저자는 한국 고대의 정통을 어떻게 체계화했는지 서술하시오. [4점]

동방의 역사도 갖추어져 있다. 기전체로는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있고, (가) (으)로는 『동국통감』이 있다. 그리고 『여사제강』과 『동사회강』 등의 책이 있어 빛나도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소략하면서 사실에 어긋나고, 『고려사』는 번잡하면서 요점이 적고, 『동국통감』은 의례(義例)가 어그러짐이 많고, 『여사제강』과 『동사회강』은 필법이 혹 어그러진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읽고는 개연히 바로잡을 뜻이 있어, 동국의 역사 및 중국의 역사 가운데 동국의 일에 대해 언급한 것을 가져다가 ㉠ 이 책을 만들었는데, ㉡ 주자의 법을 따랐다. ... (중략) ... 대체로 역사가의 대법(大法)은 ㉢ 계통(系統)을 밝히고, 찬역(纂逆)을 엄히 하고, 충절을 드러내고, 시비를 바로잡고, 전장(典章)을 상세하게 밝히는 것인데, 여러 역사책이 여기에 실로 의논할 만한 것이 많으므로 약간 손질을 가하고, 오류가 심한 것에 있어서는 별도로 부록 2권을 만들어 아래에 붙여 놓았다.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 ① 《윤·김 임용역사2》 p.733
- ② 5-6월 5주차 27강: 《한통》 p.346
  - p.346 안정복: 종래의 역사적 정통성을 스승(성호 이익)을 계승하여 우리 역사에 적용, 기자 조선을 마한으로 연결.
- ③ 7-8월 9주차 47강: 《한특(구)》 p.499
  - p.499
  - ★안정복 《동사강목》: ★발해를 '외기'로 처리해 본국사에서 빼고, 민족생활권을 반도 이남으로 뚫으로써 청에 대립되는 독자성의 측면을 강조 ← 다산도 유사.
- ④ 2016단원별 문제 제1강 한국 고대사 5번

(6) B형 6번

6. (가), (나)에 들어갈 기구의 명칭을 각각 쓰고, 밑줄 친 ㉠을 요청한 이유를 1가지 쓰시오. 그리고 (가)와 (나)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5점]

○ 司憲府大司憲許應等 上時務七條 … (중략) …  
 其四 州府郡縣 各有守令 鄉愿好事之徒 置 **(가)** 無時群聚  
 詆毀守令 進退人物 侵漁百姓 甚於猾吏 乞皆 **㉠** 革去 以除積弊  
 - 『태종실록』 태종 6년 -

○ 廣陵府院君李克培議 州府郡縣 各有土姓 其在京從任者 謂之 **(나)**. **(나)** 擇其居鄉土姓剛名品官 … (중략) … 在世祖  
 朝忠州民告其州守令 其時 **(가)** 以守令告訴爲不可 侵其人  
 太甚 乃至上聞 以此罷之  
 - 『성종실록』 성종 13년 -

○ … (전략) … 革罷以來 鄉風日以渝薄 臣意亦以爲復立 **(가)**  
 … (중략) … 則雖未能卒變薄俗 亦或有維持風俗 而頑惡之徒  
 庶少戢矣  
 - 『성종실록』 성종 19년 -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① 《윤·김 임용역사2》 p.516~517

② 5-6월 2주차 9강: 《한통》 p.273



- p.273 - ★향촌사회에는 조선 초기부터 **유향소**가 설치되어 지방자치기구로 기능하고 있었음.
  - ↳ 유향품관(관인신분 무직자)으로 구성, 태종 혁파→세종 복설→세조 폐지→성종 부활 (수령에 의하여 장악된 관 주도 기구), 수령은 향리 통솔+그 지방 양반의 협조 필요하여 유향소 이용,
  - 서울에는 각 지방 출신관리로 구성된 **京在所**
    - ↳ 해당 지방의 제반사 주선, 서울과 지방 간 연락 담당. 경재소가 유향소의 좌수, 별감에 대한 통제, (p.274 3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경재소의 좌수·별감은~' 오류, '좌수·별감'은 유향소의 벼슬임).
    - ★★京邸吏(京主人): 향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서울에 파견·상주시켜 그 고을의 공부를 수납하도록 함.

③ 7-8월 2주차 10강

: 《미래엔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 참고자료 III-1-② p.4 유향소

④ 9-11월 4주차 39강: 조선시대 지방제도 필기

③지방제도 T 고려 말 상황: 고려 초기 호족 특정지역 장악 → '본관제' 실시, 기인제, 사심관제 실시 T 상충향리  
 : | |  
 : | |  
 ↳ 조선초기

①고려전기 상충향리 → 관리 진출, 지역의 토호(속현 등의 행정 담당), 이들의 자제 → 다수 관원 진출(사대부)

②중,하위 향리: 직역 세습, 토호 자제 → 고려 후기 위상 하락 cf)其人役

③조선초기: 人口와 物産 中心 지방제도 개편 → 8도 체제 구축 T 지방장관: 관찰사 파견(수령 통제)  
 : ↳도호부/ 州, 郡, 縣(현령 종5품/ 현감 종6품)  
 cf)고려: 감무

↳ 관찰사 \*수령7사 → 增戶口 ←향리층 예측시켜 6房 격하!

王 + 경재소 - 유향소 \*종래 여론 주도층으로 자처했던 閑良(品官=官人으로서의 신분 소지): 공민왕 이후 "왜구, 흉건적" 浮上  
 ↳ 경저리→영저리→향리 점설직, 검교직, 동정직 조선건국 가담

⑤ 조선 전·후기 괄호 넣기 15번

15. 향촌사회에는 조선 초기부터 ( )가 설치되어 지방자치기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지방에 파견된 수령은 향리를 잘 통솔해야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지방 양반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임무 수행이 가능하였으므로 ( )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서울에는 각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된 ( )가 있어 해당 지방의 제반사를 주선하고 서울과 지방 연락을 담당하였다. 또한 향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서울에 파견·상주시켜 그 고을 공부를 수납하도록 한 ( )가 있었으며, 감영에는 ( )를 두었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지방의 양반과 향리들의 협조를 얻어 지방통치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세력을 견제할 집권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 通論 274

⑥ 2016단원별 문제 제4강 한국사 조선시대 전기 9번



(7) B형 7번

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 이후 전개된 1920년대의 독립 운동 전선의 통합 노력에 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가)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體)하여, 1919년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 조의 임시헌장을 기본 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리(公理)를 창명(彰明)하며,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및 내치를 주비(籌備)하며, 정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중략)...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위임함.

(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 국권은 인민에게 있음. 광복 완성 전에는 국권이 광복 운동자 전체에 있음.

제2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음.

㉠ 광복 운동자의 대단결인 당(黨)이 완성된 때에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 이 당에 있음.

...(하략)...

<작성 방법>

- (가) 헌법은 어느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제정되었는지 제시할 것.
- (가) 헌법 하의 정부가 분열된 이후 독립 운동의 통합과 활로 모색을 위해 소집된 회의 명칭을 제시할 것.
- 밑줄 친 ㉠ 결성의 일환으로 국내와 만주에서 전개된 운동을 각각 제시할 것.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 ① 《윤·김 임용역사2》 p.918, p.921, p.936~939, p.961
- ② 1-2월 8주차 144강: 한국 근대사 자료 p.16
- ③ 7-8월 8주차 40강: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p.263, p.272, p.288
- ④ 2016단원별 문제 제7강 한국 근현대사2 10번

## 2. 동양사

문항	배점	출제영역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A형	5번	2	고대: 당 군사제도(부병제, 모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3》 p.172</li> <li>• 3-4월 7주차 31강: 《한중》 p.176~178</li> <li>• 4/27 형성평가 2번</li> <li>• 3-4월 8주차 36강 :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p.194 부병제에서 용병제로</li> </ul>
	6번	2	일본사: 미일수호통상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3》 p.433</li> </ul>
	11번	4	중세: 격의불교, 구검지, 복위 태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3》 p.414~142, p.151~152</li> <li>• 2015단원별 문제풀이 제3강 동양 중세사 2번</li> <li>• 3-4월 6주차 27강 : 《한중》 p.147~151</li> <li>• 3-4월 7주차 31강 :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p.152 구마라십의 번역 작업, p.156 구검지</li> <li>• 7-8월 4주차 18강 : 《아틀라스 중국사》 p.62~63</li> </ul>
	13번	4	근세: 명 태조(홍무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김 임용역사3》 p.285</li> <li>• 2015단원별 문제 제6강 동양 근세사 3번</li> <li>• 5-6월 4주차 20강: 《한중》 p.242~245</li> <li>• 7-8월 7주차 31강 : 《아틀라스 중국사》 p.130~131</li> <li>• 7-8월 7주차 33강 :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p.299 승상제 폐지-전제군주제의 도래</li> </ul>
B형	3번	4	근·현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1) A형 5번

5. (가)에 들어갈 제도의 명칭을 쓰고, 밑줄 친 ㉠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타난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군사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2점]

往者分建府衛 計戶充兵 裁足周事 二十一入募 六十一出軍  
 ... (중략) ... 開元六年 始詔折衝 (가) 每六歲一簡 ... (중략) ...  
 天下久不用兵 (가) 之法寢壞 ㉠番役更代多不以時 衛士稍稍  
 亡散 至是益耗散 宿衛不能給 宰相張說乃請 ㉡一切募士宿衛  
 - 「신당서」 -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① 《윤·김 임용역사2》 p.172

② 3-4월 7주차(31강):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p.176~178

p.176~178

■ 안사의 난과 성당의 증언

+ 당송변혁기

→ 日, 나이토 교난

‘宋代 근세사회’ 주장: 英 16C와 유사, 황제집권 출현/사대부/상공업↑/계약중시→지주전호제/성리학→민족주의↑

- 7C 후반 율령통치 중요

• 도호(일반민호가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

↳ 무후대부터 현종대에 걸쳐 나타남,

↳ 근본적인 원인: 토지의 경병에 의한 소농민의 몰락과 유랑 혹은 과도한 賦·兵역의 편중부담이 원인이었음

• 모병제로의 전환

↳ 정책 변경: 객호를 본적지로 송환시켜 호적에 재등재 → 객호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주지의 호적에 등재, 병농일치를 기반으로 한 부병제의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었음.

↳ 천보원년(742) 변경에 10개의 번진과 절도사를 두면서 점차 모병제 도입: 병제 전반이 부병제→모병제 이행

: 모병제로의 전환→당조 재정부담↑, 절도사 세력↑, 병사와 절도사 간 가부자관계(군대 내 사조직 형성),

↳ 일반적으로 장성 밖에는 무장, 장성 안에서는 문관이 겸임토록 했으나 점차 무관이나 이민족 출신을 장성 내의 절도사로 임명, 안록산 등장의 직접적 계기가 됨.

③ 4/27 형성평가 2번

2. (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2가지 쓰고, (나)이후 나타난 兵制의 변화를 쓰시오.

7세기 후반이 되면 唐의 율령통치는 동요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 단적 표현이 (가)逃戶였다. 도호란 일반 민호가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고, 따라서 客戶를 본적지로 송환시켜 호적에 재등재시키는 (나)기존의 방식에서 객호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주지의 호적에 등재토록하는 등 정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 이유 .....
- 병제의 변화 .....

\* 중국 중세사 형성평가(3)

정치체제 변동: 통치구조 변동

① 지배층의 변화 - 문벌 귀족사회(안사의 난 이후 약화)

↳ 번진제 전환: "절도사" 파견/ 환관정치, 원 화중흥(원종)→순지 증가,  
"절도사출신 관료세력 vs 환관(군 사반란↑)"→우미 당쟁  
갈등+협력

② 사회운영 원리도 전환: 군전제 기반→국가재정마련, 지배층(관인영업전)/군전농(토지 분급)→조용 조/집역/地·戶稅+부병제(병농일치)

③ 종속적 변동 : 사유제 →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

④ 3-4월 8주차 36강: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p.194 부병제에서 용병제로

(2) A형 6번

6. 밑줄 친 ㉠ 조약의 명칭을 쓰고, 밑줄 친 ㉡의 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1가지 쓰시오. [2점]

외국인과 일본인이 교류하면서 그 동안 다섯 항구를 열었다.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은 요코하마가 첫째이고 그 다음이 고베이며 나머지 세 항구는 보잘 것 없다. ㉠ 미국과 맺은 이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구마다 거류지를 설정하고 내외국인의 주거지에 경계를 두고 외국인의 여행 범위를 항구로부터 사방 100리로 규제하였다. ... (중략) ... ㉡ 이 조약으로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은 반면, 일본은 충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체면을 지킬 수 없다. 이와 같은 관계는 일본에게 매우 심각한 병이며 그 치료의 책임은 중차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 -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① 《윤·김 임용역사3》 p.433



(3) A형 11번

11. 밑줄 친 ㉠의 사상적 특징을 쓰고, ㉡에 들어갈 승려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의 내용을 쓰고, 밑줄 친 ㉣의 내용을 토대로 태무제의 종교 정책을 1가지 서술하시오. [4점]

(가) 불교는 후한 시기에 중국에 유입되었지만, 5호 16국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다른 발전 양상을 보였다. 동진(東晉)에서는 ㉠ 격의불교(格義佛敎)가 나타났다. 반면 북조 황실에서는 '황제는 현세의 부처'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조에서는 대승 경전의 번역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서역 쿠차(龜茲) 출신의 ㉡ 은/는 「묘법연화경」 등을 비롯하여 많은 불경을 번역하였다.

(나) 재상 최호가 ㉢ 구검지의 신법(新法)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최호는 태무제에게 상소하여, "지금 은 구검지와 같은 맑은 덕을 지닌 숨은 신선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폐하의 다스림이 현원씨 황제(黃帝)와 똑같아서 천명에 감응한 징표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 태무제가 기뻐하여 구검지를 높이고 받들어 신법(新法)을 천하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도업(道業)이 크게 성행하였다.

- 「위서」 「석노지」 -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 ① 《윤·김 임용역사3》 p.414~142, p.151~152
- ② 2015단원별 문제풀이 제3장 동양사 중세 2번
- ③ 3-4월 6주차(27강)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p.147~151
- ④ 3-4월 7주차(31강)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p.152 ★★구마라십의 번역 작업  
p.156 ★★구검지
- ⑤ 7-8월 4주차(18강) 『아틀라스 중국사』 : p.62~63 민중의 종교, 황제의 종교

(4) A형 13번

13. 다음은 '명대의 황제 권력'에 관한 자료이다. ㉠, ㉡에 들어갈 기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을 초래한 사건의 명칭을 쓰고, 그로 인한 황제 권력의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점]

(가) 진(秦)이 처음으로 승상을 두고 얼마 있지 않아 망했다. 한·당·송이 이 승상 제도를 이어 받았는데, 비록 현명한 승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소인이 권력을 전단하고 정치를 어지럽힌 경우가 많았다. 우리 왕조에서 ㉠ 승상을 폐지하고 오부(五府)·육부(六部)·대리시(大理寺) 등의 아문을 두어 천하의 서무(庶務)를 나누어 다스리고 서로 견제하되 감히 서로 억압하지 않으며, 일은 모두 조정(朝廷)에서 총괄하는 것이 온당한 바이다.  
- 『명태조실록』 -

(나) 홍무 9년 태조는 중앙의 중서성(中書省)에 설치된 평장정사(平章政事)와 참지정사(參知政事)를 폐지하고 이듬해 통정사사(通政使司)를 따로 설치하여 내외의 상주문을 중서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케 하였다. 또한 원대(元代) 이래 중서성의 예하에서 지방의 민정과 군정을 총괄하던 ㉡ 을/를 폐지하고 대신 포정사사(布政使司)를 두어 민정만을 담당하게 하였다. 홍무 13년에는 대도독부(大都督府)를 폐지하고 ㉢ (으)로 분할하였다.

[출제 경향과 강의 일치도 근거]

- ① 《윤·김 임용역사3》 p.285
- ② 5-6월 4주차(20강)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p.242~245
- ③ 7-8월 7주차(31강) 『아틀라스 중국사』 130~131
- ④ 7-8월 7주차(33강)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p.299 ★승상제 폐지-전제군주제의 도래